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한 대학생의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Everyday Life Inform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on Online Communities: A Case Study of Everytime

최 시 내 (Sinae Choe)**

오 상 희 (Sanghee Oh)***

< 목 차 >

I. 서론	V. 분석 결과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VI. 논의
III. 연구 설계	VII. 결론 및 제언
IV. 연구 방법	

요약: 본 연구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대학생의 일상정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일상정보 이용추구모델과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대학 소속의 학생들을 면담하였다. 그 결과,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에브리타임을 일상정보의 추구 및 공유에 유용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사일정, 수업정보, 졸업정보 등 학교 생활 정보 추구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건강정보, 맛집정보, 주거정보 등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입학한 1, 2학년의 경우 에브리타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상황을 경험한 3, 4학년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에브리타임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에브리타임이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리타임의 적극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언급됐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학 연구와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일상정보 이용추구모델, 활동이론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usage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seeking and sharing everyday life information through an online community called Everytime. The study was designed based on everyday life information-seeking and activity theory models, and students from various universities were interview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indings showed that Everytime users perceive Everytime as a valuable online community for pursuing and sharing everyday life information. It was primarily used to search for university life information, such as academic calendar, class, and graduation, and health, restaurants, and housing. In the case of the freshmen and sophomores who enter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ir dependence on Everytime was high, and juniors and seniors who experienced university life before COVID-19 also responded that Everytime is one of the essential sources of information in university life. Although Everytime provides quick and valuable information, users mentioned the moral hazard as a major factor hindering the active use of Every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primary data for informatics research on the online community of college students an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online commun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Online Community, Everytime, Everyday Life Information-seeking, Activity Theory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choesn@knu.ac.kr / ISNI 0000 0005 0371 2211)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anghee.oh@cnu.ac.kr / ISNI 0000 0004 7877 1761)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1년 8월 26일 • 최초심사: 2021년 9월 2일 • 게재확정: 2021년 9월 1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239-266,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3.202109.239>

I. 서론

일상정보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로,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생활 안에서 요구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Savolainen, 1995: 2007).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정보를 추구하기도 한다(Savolainen, 1995: 2007). 일상정보 수집에서 특히 인터넷은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정보원이자 주요 도구이다(이정미, 2010). 인터넷 이용자들은 주로 여가활동(95.5%),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96.2%), 필요한 정보 획득(94.8%)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건강 정보검색이 2019년 대비 17.3% 상승하였고, SNS 이용률은 2020년을 기준으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일상정보 추구행위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이용자는 바로 대학생들이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대학생들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비대면으로 검색, 수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대학생활의 만족도 및 결속감, 학업지속의향,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등이 기존 재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하연, 고주은, 주민호,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정보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기대한다(이하연, 고주은, 주민호, 2021). 대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며, 정보 추구 활동이 복잡하고, 정보 검색 엔진을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권나현 외, 2013; Rieh & Hilligoss, 2008). 대학생들은 건강정보(Zhang, 2012), 취업정보(이상무, 최두식, 문병준, 2017), 여가(이병찬, 이천희, 김연정, 2015), 학습(손진영, 임걸, 2016) 등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국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는 웹사이트나 카페의 형태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사용한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 '대신전해드립니다'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플랫폼의 변화를 겪으며 발전했다(임보연, 권기성, 2020).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일상정보에 대한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브리타임은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2021년 상반기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신학기 필수 앱으로 꼽히기도 했다(강민주, 2021).

대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일상정보를 공유하며, 관심사에 따라 직접 게시판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 대학교 캠퍼스마다 다른 게시판을 가진다(에브리타임, 2021). 하지만 에브리타임은 익명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종 혐오 표현이나 성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정지원, 2019; 최유숙, 2019). 에브리타임 관련 연구로 토픽모

텔링을 통하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이슈 변화를 분석한 연구(박준용, 2021), 혐오표현 양상에 대한 연구(최유숙, 2019) 등이 있었지만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두 연구 모두 하나의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에브리타임은 학교마다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와 논의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를 대상으로 그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을 활용하여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정보 수집, 이용,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에브리타임의 주체, 도구, 규칙, 목표, 커뮤니티, 역할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Q.1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분야) 및 사회적 요인(소속 대학교)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Q.2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6개인 요소인 주체, 객체, 도구, 규칙, 공동체, 역할(분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Savolainen의 일상정보이용추구(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ELIS) 모델과 Engeström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을 통해 주고 받는 일상정보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조사,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일상정보 이용행태

일상정보 이용행태는 업무나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일상적인 관점에서 삶의 방식을 유지하거나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과정이다(Savolainen, 1995). ELIS 모델은 삶의 방식(way of life)과 태도(mastery of life)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들이 일상정보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청소년(Edwards & Poston, 1996), 어린이(Given et al., 2016), 부모(Greyson, 2017), 여성(Dunne, 2002), 환자 혹은 간병인(Rubenstein, 2015)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상정보 이용행태 연구가 진행되었다(Savolainen, 2005).

ELIS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일상정보 이용행태 연구(Sin, 2016), 일상정보의 탐색 행동 연구(Rantala, Enwald, & Zinn, 2019), 유학생, 이공계생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권나현 외, 2013; 황라헬, 2019; Oh, Butler, & Lee, 2014; Sin & Kim, 2013), 여가 활동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이용 연구(백가연, 박지홍, 2021), 선거 시기의 일상정보 이용행태 연구(이정미, 20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일상정보 이용행태가 기존의 연구와 어떤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온라인 커뮤니티

커뮤니티란 지역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공동 생활권으로, MacIver(1970)가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사람들은 공통적인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구성원들은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충족감 등으로 표현되는 공동체의식을 갖는다(노효진, 장우권, 2019).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커뮤니티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형태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으며,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양지연, 김혜인, 2012). 그들은 댓글 등을 통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며(Frost & Massagli, 2008), 정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공감과 정서적인 지원을 공유한다(Rubenstein, 2015). 구성원들은 복잡한 정보요구를 가질 경우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Alasmari & Zhou, 2019),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참여도 등의 태도가 정보 이용행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Park & Cho, 201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즐거움이나 이타심, 개인적인 이익 등과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정보 공유의 동기가 된다(Oh & Syn, 2015). 사람들은 SNS를 커뮤니티의 일부로 인식하고 SNS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한다(Miller et al., 2019).

대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일상생활 정보나 학교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의 장으로 인식한다(이항, 김준환, 2010).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기도 한다(손진영, 임걸, 2016).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선행연구는 취미 및 여가(이병찬, 이천희, 김연정, 2015; 이항, 김준환, 2010), 취업(이상무 외, 2017), 학습(손진영, 임걸, 2016)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와 정보 공유의 동기, 역할과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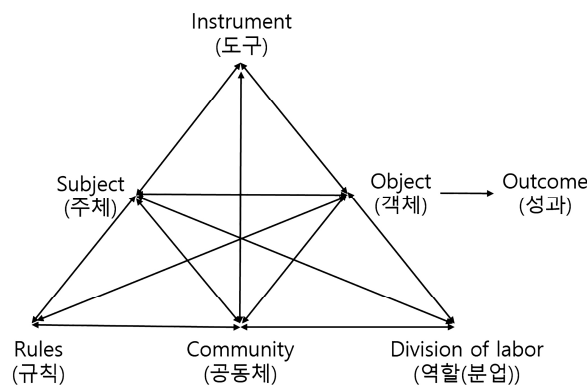
대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정보 공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병찬, 이천희, 김연정, 2015). 정보 공유는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과 정보제공성 만족에 영향을 주어 커뮤니티의 재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이항, 김준환, 2010). 에브리타임에 대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같은 기간의 게시글을 비교했을 때 게시글이 약 27%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이슈와 건강 관련 이슈, 온라인 강의 및 시험 관련된 이슈가 새롭게 주요 이슈로 나타나는 등, 학생들의 정보 공유 및 대화의 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갔음을 보여준다(박준용, 2021).

3. 활동이론(Activity Theory)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란 인간의 활동과 그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으로(Allen, Karanasios, & Slavova, 2011),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화역사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으로 불리기도 한다(Kaptelinin & Nardi, 2006). Engeström(1999)은 활동이론을 통하여 인간 활동에 있어서 활동 주체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구를 이용하게 되고, 그 활동의 배경에서 규칙, 공동체, 분업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활동이론은 개인과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생성, 구조,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모델이다(Kaptelinin & Nardi, 2006).

Engeström(2015)은 인간의 활동은 사회적 현상이라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Vygotsky의 1세대 활동이론의 3요소인 도구, 주체, 객체에 규칙, 공동체, 역할(분업)이라는 사회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3세대 활동이론을 완성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Engeström의 활동 체계 모델(Engeströ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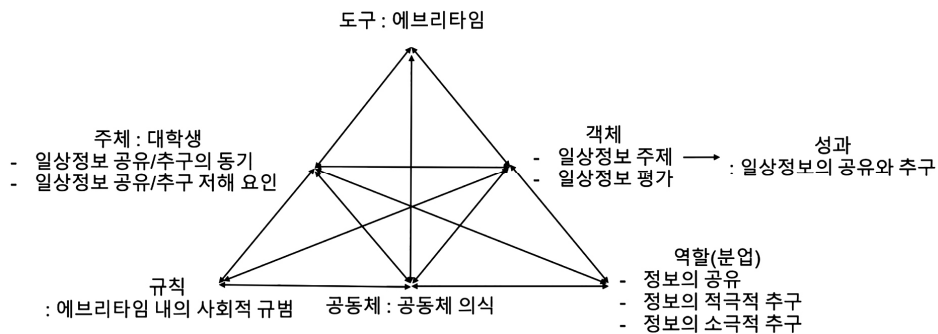
정보학에서 Wilson(2006; 2008)은 활동이론이 정보 행위의 분석에 적용이 가능하며, 정보 이용행태 연구의 개념적 틀로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보 행위의 주체는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보 도구를 활용하며, 이 때 규칙과 커뮤니티, 노동 분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이용행태 연구에 활동이론을 적용하면 인간 활동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여,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정보 이용행태의 맥락(context)을 고려한 계층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Allen et al., 2011).

따라서, 활동이론은 다양한 문제 상황의 극복을 위한 정보행동 연구(이정연, 정은경, 권나현, 2012), 공공 안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및 정보의 이용(Mishra, Allen, & Pearman, 2013),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활용(Lioutas et al., 2019), 정보 시스템의 채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Kamanga & Alexander, 2020)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활동이론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Baran & Cagiltay, 2010), 직장 내 업무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Forsgren & Byström, 2018) 등의 연구에 적용되었다.

Ⅲ.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상정보의 공유와 취득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추구하고 공유 활동에 대한 연구로 기존의 일상정보 이용행태 연구에서 분석되는 정보 이용의 동기, 정보 및 정보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공동체 의식에 따른 인식 차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6개 요소와 이를 통해 이론 성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에브리타임을 통한 대학생의 일상정보 추구, 공유 모형

- **주체(Subject):** 주체는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정보행위의 주체인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과 공유의 동기는 정보행위를 실행 혹은 중지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Nahl, 2004).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개인을 주체로 보고 에브리타임에서 일상정

보를 공유하거나 취득하는 동기에 집중하여 조사, 분석한다.

- 객체(Object): 객체는 주체에 의해 다루어지는 인간 활동의 대상을 의미한다. 일상정보의 주체나 평가 등을 객체 관련 연구라 볼 수 있는데(Head & Eisenberg, 2011; Sin & Kim, 2013), 본 연구에서는 에브리타임을 통해 추구, 공유되는 일상정보의 주체와, 각 정보주체에 따른 정보원으로서 에브리타임의 중요성, 신뢰도에 대하여 조사한다.
- 도구(Instrument): 도구는 주체의 객체를 위한 행위를 매개하며 주체와 커뮤니티 구성원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일상정보를 위한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므로(Kim & Sin, 2016), 본 연구에서는 에브리타임을 일상정보 추구하고 공유의 도구로 간주하고 정보원으로서 사용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 규칙(Rules): 규칙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법, 정책, 규정, 관습, 사회적 규범 등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이용자의 도덕적 책임이나 집단 규범은 정보 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Park & Cho, 2012; Zhou, 2011). 본 연구에서는 에브리타임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의 종류와 이용자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 공동체(Community):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체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통점은 관계의 매개가 되며, 공감은 정보 공유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Frost & Massagli, 2008; Rubenstein, 2015), 본 연구에서는 에브리타임 이용자 간의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조사한다.
- 역할(분업)(Division of labor): 역할(분업)은 서로 협동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정보요구의 복잡성에 따라 활동의 내용이 달라진다(Alasmari & Zhou, 2019; Park & Cho, 2012). 본 연구에서는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의 관심도에 따른 역할 분담과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별로 에브리타임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다양한 대학 소속의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 대학의 에브리타임 홍보게시판을 통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모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7개 대학,

3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반구조화 면담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1년 8월에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비대면의 경우 줌(zoom)을 사용하였다. 참가자에게는 면담 종료 후 사례로 음료쿠폰을 지급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일상정보 이용행태 및 에브리타임 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는 일상정보이용행태, 에브리타임 관련 등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원활한 면담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일상정보라는 개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 사전 설문지 구성 및 측정요소

구분	측정 요소	관련 선행연구
일상정보 이용행태	자주 찾는 정보 주제	(Oh & Syn, 2015; 황라헬, 2019)
	이용하는 정보원	(이정미, 2010; 황라헬, 2019)
에브리타임 관련	이용기간	(Oh & Syn, 2015, Miller et al., 2019)
	이용빈도	(Oh & Syn, 2015; Sin & Kim, 2013; 권나현 외, 2013)
	정보원으로서의 비중	(Oh, Butler, & Lee, 2014; 이상무, 최두식, 문병준, 2017)
	게시판 생성 및 관리 경험 유무	-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학교, 학년, 전공, 대학 내 활동 경험 유무	(Rieh, Hilligoss, 2008; 이정미, 2010; 황라헬, 2019)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면담은 정보이용행태연구와 활동이론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반구조화 면담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부록 1] 참고). 면담지의 질문들은 활동이론의 요소로 범주화하였으나 질문의 순서는 참가자가 답변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내용 전체를 전사하였다. 면담은 평균 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면담을 원칙으로 진행하였고, 4팀의 경우에만 2명씩 면담에 응했다. 면담 내용은 활동이론의 6가지 요소에 맞추어 진행하였고, 유사한 응답 내용을 모아 범주화를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을 완료하였다.

V. 분석 결과

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60%), 남성(40%)로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고, 학년은 4학년이 절반 정도(53%)를 차지하였으며, 2학년(23%), 3학년(13%), 1학년(10%) 순이었다. 응답자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이 63%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눈덩이 표집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는 7개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으로, 그 중 4개 대학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명)	구성 비율(%)	
성별	여성	18	60
	남성	12	40
연령	20세 이하	2	7
	21세	6	20
	22세	4	13
	23세	3	10
	24세	4	13
	25세	3	10
	26세	8	27
학교	A대학교	9	30
	B대학교	7	23
	C대학교	6	20
	D대학교	5	17
	E대학교	1	3
	F대학교	1	3
	G대학교	1	3
학년	1학년	3	10
	2학년	7	23
	3학년	4	13
	4학년	16	53
전공분야	인문사회계열	10	33
	교육계열	9	30
	이공계열	6	20
	기타	5	17

연구 참여자의 에브리타임 이용 경험은 <표 3>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평균적으로 에브리타임을 약 3년 정도 이용했으며, 일주일에 4회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일상정보의 정보원 중 에브리타임의 비중은 약 30%이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시행된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질문은 통계적 분석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른 면담조사의 답변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되었다. 참여자는 번호를 매겨 P1에서 P30으로 표기하고 분석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에브리타임 이용 경험

구분	에브리타임 이용 기간(개월)	1주일에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는 횟수	정보원 중 에브리타임의 비중(%)
평균	32.4	4.0	28.0
중앙값	16.5	2.7	19.2
표준편차	33.5	3.0	25.0

가. 주체(Subject)

면담 결과 연구 참여자 30명 모두가 에브리타임을 통하여 일상정보를 추구해보았다고 대답했다. 주요 동기로는 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14명), 정보가 빨리 올라와서(12명), 에브리타임 이외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5명), 알아보기 쉬운 말로 설명되어 있어서(4명), 익명이라서(3명), 같은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여서(3명), 댓글로 상호작용 할 수 있어서(3명), 정보가 정확해서(3명), 재미있어서(3명)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정보의 신뢰성이나 최신성, 유용성에 관련된 의견도 존재했다. P30은 에브리타임의 신속성에 대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제 아예 학사 일정 같은 거를 요약해 해서 그것만 스크린 캡처를 따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 학사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에브리타임을 이용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 같은 걸 확인 하는게 에브리타임을 못 따라가더라고요.”(P30)

다른 정보원 대신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10명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변화처럼 신속성을 요하는 정보가 올라오는 속도가 에브리타임에 비해 느리거나, 정보를 찾아보기가 불편하다고 평가하였다. 학교 홈페이지는 딱딱한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에브리타임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P10 답변 참고). 또한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속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주요한 이용 동기로 드러났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은 일상정보를 취득할 때 쉽고 빠른 정보원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들은 뭔가 딱 직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볼 수 있어서 귀찮은데 에타[에브리타임의 줄임말]는 검색 한 번 하면 짹 뜨니까요,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은 말투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공지 사항처럼 어려운 말들로 돼 있지 않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P10)

에브리타임을 정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커뮤니티의 글들이 불편해서(3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2명), 찾고자 하는 정보가 에브리타임에 없을 것 같아서(2명), 친구나 선배, 과사무실 등 다양한 정보원을 알게 되어서(2명)로 나타났다.

모든 참여자가 에브리타임에서 일상정보를 추구한 경험이 있는 반면 일상정보의 공유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명으로 절반이 약간 넘는 수치였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에브리타임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동기에 대해 P8은 에브리타임이 학교에 한정된 커뮤니티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냥 에브리타임에서 굳이 제가 그렇게 다른 글을 쓸 이유가 있나 싶어요. 흥미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에브리타임은 학교 사람만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곳처럼 제 관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또 아니잖아요.”(P8)

에브리타임에 일상정보를 공유하는 동기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타심, 공감, 보상이 주를 이루었다(Oh & Syn, 2015). 특히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이유로 정보를 공유했다는 응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P6 답변 참고). 시험정보의 확인 시 필요한 포인트를 보상으로 얻기 위해 작성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3명이었다.

“저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 수업시간에 결석한 사람이 녹화본 있나고 글을 올려서 제가 가지고 있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P6)

나. 객체(Object)

학사 일정, 교수 및 수업 정보, 졸업 관련 정보 등 학교 생활에 관련된 정보는 모든 응답자(30명)가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주로 취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P13답변 참고)

“학교에 관련된 거는 에타를 무조건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 관련된 거, 학교 공지 사항이라든지 학교 주변 인프라는 에타를 다 거치는 것 같아요”(P13)

또한 학교 생활 정보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정보나 주변 병원 정보 등 건강 정보(13명), 맛집 정보(7명), 주거 정보(4명) 등 같은 생활 반경을 나누는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공유되었다. 쇼핑 정보(8명)의 경우 에브리타임 내에 존재하는 장터 게시판과 책방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중고물품과 중고책의 거래를 통해 활발하게 취득 및 공유되었다(P2 답변 참고).

“습기제거제를 많이 사가지고 팔려고 장터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고요, 강의 교재를 가진 친구가 없어서 빌릴려고 올려봤고, 빨래건조대 필요해서 마트까지 가기 힘들어서 제 이웃주민 학생에게 사봤고요.”(P2)

한편, 코로나19 이후에 입학한 1,2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하여 동아리, 또래 친구 사귀기 등 대인관계 정보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대인관계 정보를 찾아보았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5명 중 3명(60%),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9명 중 4명(44.4%)이 코로나 19 이후에 입학한 학생이며, 교내 확진자 정보와 학교가 위치한 도시의 확진자 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브리타임에서 코로나19 정보를 취득하다고 답한 9명 중 7명(77.8%)이 여성이었으며, 주변 병원 정보 등 건강 정보를 찾아보았다고 응답한 4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각 정보주체에 따른 정보원으로서 응답자의 절반인 15명이 다른 정보주체에 비해서 학교 생활 정보를 찾아볼 때 에브리타임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에브리타임의 게시판을 잘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수강신청 기간이나 학기 초, 시험기간에 강의평가와 시험후기 기능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명)(P7 답변 참고). 강의평가의 경우 수강한 학생들이 직접 쓴 강의평과 시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익명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상세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학교 관련 정보는 에브리타임에 질문하면 좀 즉각적으로 답변이 오는 편이고, 거기서 시간표 같은 것도 짤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강의평 같은 거를 실제로 들여보지 않으면 교수님이 어떻게 수업하시는 지도 모르는데 [알아볼 수 있어요]”(P7)

에브리타임을 통해 주고받는 일상정보에 대해 신뢰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63%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학교 생활 정보에 대하여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인증을 거친 사람들만 이용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있었다(P1 답변 참고).

“정보는 신뢰해요. 왜냐하면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가 결국 학교 재학생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댓글과 글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하는 편입니다. 같은 **대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대 근처에 산다는 의미고, 학교 관련 정보에서도 비교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P1)

에브리타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1명이며,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익명이라서(4명), 학생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2명),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 정보라서(2명)라고 답변했

다. 에브리타임에서 정보를 검색한 후에 학교 홈페이지나 웹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아무래도 이게 익명으로 게시글을 쓰잖아요. 저는 솔직히 완벽하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에타의 의견을 듣고 다른 방법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웹 서핑이라든지 이런걸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좀 신중하게 보는 편이어서요.”(P28)

다. 도구(Instrument)

일상정보의 공유 및 추구의 도구인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에브리타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25명).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친구와 선배 등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더욱 커졌으며(9명),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소통의 장이 되는 유일한 창구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P24 답변 참고).

“진짜 좀 많이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1학년 때는 학기 초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니까 선배들도 못 보고 교수님들도 못 보고 이러니까 물어볼 때가 에타밖에 없어서 에타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P24)

또한 학교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에 있어서 에브리타임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강의 평가와 시험 정보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였다.

“제가 **학과다 보니까 졸업 시험이 있는데 졸업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윗 세대분들이 올려 주신 꿀팁 같은 거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P28)

응답자들은 대학에서 아직 인간관계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하여 관련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경우 더욱 유용하다고 응답했다(7명)(P22 답변 참고)

“새내기가 됐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 내가 그래도 **대 소속인 건 조금 느끼고 싶은데 학교도 안 가니까 그런 거를 좀 느끼기 위해서 에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고 그런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더 자주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P22)

현재 고학년인 경우에도 신입생 때 정보원으로서 에브리타임이 유용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에브리타임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P27 답변 참고). 에브리타임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특히 친구나 선배를 통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는 [지금은 4학년인데] 일단 1,2학년 때 좀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비대면 상황도 굳이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 아무래도 1,2학년은 학교를 안 가니까 또 선배들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의 중요도가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P27)

한편,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질문에 일부 이용자의 이용 태도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9명)(P19 답변 참고). 일부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혐오표현 사용 등이 에브리타임 사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거나, 금지어를 설정하여 게시글을 필터링하는 등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P12 답변 참고).

“옛날에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성적으로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갑자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지 그런 글들을 한 번씩 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조금 보기 불편하죠.”(P19)

“에브리타임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이용자들은 좀 제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P12)

학생이 직접 게시판을 생성하고 관리, 양도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 의견이었다(25명). 이유는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된다는 점과(8명),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한다는 점이 주요했다(7명)(P7 답변 참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게시판을 만들고 또 의견을 나누는 곳이다 보니깐.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관리하거나 양도하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P7)

현재 에브리타임은 게시판을 만드는데 어떠한 규칙이나 제약 등이 없기 때문에 게시판 생성이 활발하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을 생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6명), 너무 많은 게시판이 생겨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5명)(P30 답변 참고). 게시판 생성 및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참여자 6명 중 5명(83%)이 교육계열을 전공하고 있었으며, 그 중 3명이 B대학 소속이었다. 대학에 따라 게시판의 수와 활성화 정도

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느 정도 뭔가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윤리를 지키는지 그런 공중 도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게시판이 만들어졌으면 해요.”(P30)

라. 규칙(Rules)

에브리타임 내에서 존재하며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반말의 사용(10명), 검색해보지 않고 질문하는 행위 지양(7명), 게시판 성격에 맞는 사용(2명), 실명 언급이나 사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2명), 애칭 사용(1명) 등이 있었다. 에브리타임은 대학 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 간에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타는 익명이나 반말로 하는게 당연한거고, 일상생활처럼 배고픈데 뭐 먹냐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는게 보기 좋아요.”(P3)

또한, 3명의 응답자가 개인의 창작물을 올리거나 고민글을 올렸을 때 칭찬을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는 호의적인 분위기를 꼽기도 했다. 특징적으로 응답자들은 핑거 프린스(프린세스)의 줄임말인 “핑프”라는 단어로 ‘검색해보지 않고 손쉽게 질문글을 올려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검색 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글 게시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설명했다(P17 답변 참고).

“은어로 핑프라고 하는데 그게 속된 말로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P17)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에브리타임의 이용자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도덕적 헤이가 가장 많았다(24명, 80%). 구체적으로 심한 비방 등 공격적인 분위기(18명),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사용(5명), 특정인에 대한 욕설 및 혐오표현의 사용(4명)(P6 답변 참고) 등이 있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에 이러한 요구가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문사회계열 응답자 10명 모두가 도덕적인 측면의 보완을 원한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보기가 불편해요. 욕을 넘어서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혐오표현을 너무 많이 해요. 게시판 누르기 전에 미리보기로 몇 개 글이 뜨는데요, 그것만 봐도 과열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일단 다들 불만이 많고….”(P6)

정보공유의 측면에서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에는 허위 정보 게시 지양(3명), 사전에 해당 정보에 대한 글이 있는지 검색 후 질문글 올리기(3명),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글 및 댓글 삭제 지양(2명),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글 게시 지양(2명) 등이 나타났다(P3 답변 참고).

“질문 같은 거를 했을 때 한 번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답변이 없으면 질문을 올렸으면 좋겠고, 질문에 답글이 달렸을 때 그 글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P3)

마. 공동체(Community)

에브리타임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감하거나 동질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0명으로 약 66%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같은 학교 학생이면서(7명), 같은 고민이나 질문을 가지고 있고(6명)(P28 답변 참고), 감정적으로 위로를 주고받으며(4명),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고(2명), 실제 친구들이 사용하기 때문(1명)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제라든지 수업이나 취업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제가 한 질문이랑 비슷한게 매년 올라오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동질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P28)

그러나, 에브리타임의 구성원이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명에 그쳤다.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응답자 5명 중 2명이 코로나19 이후에 입학했으며, C대학의 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외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이용자들끼리 분쟁이나 싸움이 잦기 때문이거나(5명)(P18 답변 참고), 에브리타임 자체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2명), 익명이라서(2명)가 있었다. 에브리타임은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이나 동질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커뮤니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잦은 언쟁, 비방, 도덕적 해이 등이 공동체 의식이 생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P1 답변 참고).

“보통 이제 거기[에브리타임]에서 글을 많이 쓰고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맨날 싸우고 있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P18)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너무 분쟁을 좋아해요, 이상한 글들이 많이 보이면 ‘아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저와] 다르다고 생각해요.”(P1)

바. 역할(분업)

에브리타임을 통하여 일상정보의 추구하는 방법의 경우 검색을 통한 일상정보 추구(26명)가 가장 많았고, 특정 게시판의 타임라인을 훑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정보 습득(14명), 글이나 댓글의 작성을 통한 정보 취득(14명)으로 나타났다. 에브리타임을 통한 일상정보의 추구는 특정한 요구가 있을 때 더욱 적극적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 중에도 자연스럽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게시판의 타임라인을 훑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이나, 코로나19 이후 입학한 응답자의 경우로 한정하여 보면 60%로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게시물, 댓글 작성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일상정보를 추구하게 된 것은 대부분 검색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였다. 이는 이미 에브리타임 내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지양하는 에브리타임의 규범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P17 답변 참고).

“진짜 모를 때만 질문을 하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만 [질문 글을 올려요].”(P17)

정보 공유의 측면에서는 에브리타임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소수가 만들어낸 정보원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서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에브리타임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P3 답변 참고).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어야 에타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요?”(P3)

에브리타임 사용자들의 역할 분담에 따른 상호작용 차이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에브리타임을 통해 친구를 사귀어 본 연구 참여자가 없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입학한 연구 참여자 6명 중 2명은 에브리타임의 댓글,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있었다. 그 중 한명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에브리타임을 통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P22).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교양 수업이나 학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에타를 통해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비대면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P22)

대학 별로 살펴보았을 때, C대학 소속 참여자의 경우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좋아요 기능을 이용해봤다는 응답자가 6명 중 5명으로 83%를 차지했다. 나머지 6개 학교 참여자의 좋아요 기능 이용 경험이 25%인데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 성과(Division of labor)

에브리타임을 통한 일상정보의 추구 경험에 관하여 성과적인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0명으로 약 66%를 차지하였다. 정보의 양이 충분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6명), 선배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은 정보를 제공하며(4명)(P25 답변 참고), 같은 학교의 학생이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2명) 더욱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 3, 4학년 고학년 분들이 이제 정보를 자세하게 써놓으신 글들을 보면은 ...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예요.”(P25)

응답자 중 20명이 에브리타임을 통하여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대부분 학교 생활 정보와 관련된 경험과 학교 주변의 생활 정보가 차지했고(P1 답변 참고), 특징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에브리타임을 통해 찾은 적이 있거나, 힘들 때 위로받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신입생 때 ** 처음 왔을 때 치과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타지인이라서 병원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타 통해서 학교 근처 치과 좋은데를 검색해 봤고, 댓글도 많고 평이 좋은 곳을 골라서 가게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P1)

에브리타임을 통한 일상정보의 추구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0%를 차지했다. 얻고자 했던 정보가 특정한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인 경우가 10명, 소수 학과 관련 정보인 경우가 2명, 댓글이 달리지 않거나 검색해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2명, 검색 결과 정보가 서로 달라서가 1명이었다. 특히, 정보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8명이 에브리타임을 통한 일상정보의 공유 및 추구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경험은 만족스럽지만, 정보가 부족했던 특정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17 답변 참고).

“제가 사범대인데 사범대는 교직을 배우잖아요. 교직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주류 쪽은 정보가 잘 없지 않나...”(P17)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 이후 입학한 경우 10명의 경우 7명(70%)이 에브리타임을 통한 일상정보의 추구 및 공유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 중 선배들이 직접 알려준 정보라서라는 의견이 3명 존재했다. 그러나 해당 참여자들 중 정보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많았다(7명, 70%). 코로나19 이후 입학한 경우 학교 친구나 선배 등 인적 자원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브리타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만큼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대학 소속 연구 참여자의 83%가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일상적인 정보 추구 활동에 있어서 만족했기 때문에 좋아요 등 상호작용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VI.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에브리타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대학생이 일상정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동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에브리타임을 일상정보의 추구 및 공유에 유용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학교 생활 정보의 추구에서 에브리타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용이성과 신속성이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에브리타임은 대학별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돕고, 학교 생활 정보나 학교 주변 정보 등을 공유,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에브리타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대학 내 인적 자원 구축에 기여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입학한 1, 2학년의 경우 에브리타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에브리타임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경험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기존의 재학생보다 많았다. 3, 4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정보원에 노출됨에 따라 에브리타임 사용의 빈도는 감소하긴 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상황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이후에 에브리타임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데에는 동의하였다.

셋째, 에브리타임의 적극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꼽혔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에브리타임의 문제점으로 주로 지적된 혐오표현(최유숙, 2019), 성범죄 위협 노출(정지원, 2019)과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에브리타임 측에서는 신고 누적 시 게시물 블라인드 및 계정 정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브리타임 개발사와 이용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의 개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학년, 전공계열, 성별, 학교 등 개인적, 사회적 특성에 따른 주요 차이로는, 주제, 객체, 도구, 규칙, 공동체의식, 역할, 성과의 측면에서 대부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 정보의 검색에 적극적이며 더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는데(Rowley, Johnson, & Sbaffi, 2017), 에브리타임을 통한 일상정보 추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 별 환경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참여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정보공유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 C대학 소속 참여자의 경우 만족도가 높고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했다. 에브리타임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90%가 속하는 4개 대학에서 모두 검색하기 전에 정보글을 게시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다섯째,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대화와 소통의 장인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용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브리타임은 접속과 검색이 용이하고, 정보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주요한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이 유용한 정보원, 도구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만한 커뮤니티라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커뮤니티에 심리적으로 애착이 있는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를 통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지속되게 된다(Park & Cho, 2012).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일상정보이용 행태를 활동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에브리타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대학 환경에서의 에브리타임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개발에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학교생활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쇼핑정보, 맛집정보 등 대학생들이 관심 있는 일상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적극 지원하여 그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은 도덕적 헤이, 혐오 표현, 성적 표현 등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가 저조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켜야할 사회적 규범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운영에 있어 대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자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대학기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소셜 기반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샘플의 수가 적고, 특정 계열에 치우친 편이었다. 후속연구에는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장하고, 본 연구의 면담 내용과 연구 결과를 설문연구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에브리타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직접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관리해 본 경험을 가진 대학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용자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 및 전공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 강민주 (2021. 2. 25.). 줌·인스타페이·에브리타임 등 신학기 필수앱 선정. 포쓰저널, 출처: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425>
- 권나현, 이정연, 정은경, 장길수, 윤혜진 (2013). 넷세대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이용과 정보기기 활용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69-295.
- 노효진, 장우권 (2019).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공동체의식이 이용자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1), 137-168.
- 박준용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COVID-19 환경에서의 대학생 이슈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비즈니스트전문대학원.
- 백가연, 박지홍 (2021). 대학생의 진지한 여가 활동 정보원으로서 동영상 콘텐츠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2), 69-99.
- 손진영, 임걸 (2016). 온라인상에서 대학생의 지식공유활동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2016(2), 339-348.
- 양지연, 김혜인 (2012). 공동체와 커뮤니티 박물관: 사회적 역할과 조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7(4), 107-130.
- 에브리타임 (2021). 에브리타임, 출처: <https://everytime.kr/>
- 이병찬, 이천희, 김연정 (2015). 여가공간으로서의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교류특성, 유용성과 참여지속의도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4(2), 55-64.

- 이상무, 최두식, 문병준 (2017). 취업커뮤니티 가입대학생의 성향에 따른 구직효능감의 차이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7(3), 83-107.
- 이정미 (2010). 대학생의 일상생활 및 선거 시기 정보원 이용 형태 비교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117-135.
- 이정연, 정은경, 권나현 (201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단계별 문제상황 극복을 위한 정보행동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3), 99-122.
- 이하연, 고주은, 주민호. (2021).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교소속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4(1), 231-251.
- 이향, 김준환 (2010).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이 커뮤니티 몰입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4), 165-185.
- 임보연, 권기성 (2020). 디지털 글쓰기 공간으로서 페이스북 소재 ‘<대나무숲>’의 의미와 가능성 - ‘<대나무숲>’ 소재 자기경험서사 글쓰기를 대상으로. *리터러시 연구*, 11(5), 415-445.
- 정지원 (2019. 8. 19.). 에브리타임에서 생긴 일. *얼루어코리아*, 출처:
<https://www.allurekorea.com/2019/08/19/에브리타임에서-생긴-일>
- 최유숙 (2019). 대학생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양상: C대학 에브리타임 핫게시물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0, 33-53.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 황라헬 (2019).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Alasmari, A. & Zhou, L. (2019). How multimorbid health information consumers interact in an online community Q&A platform.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131, 103958.
- Allen, D., Karanasios, S., & Slavova, M. (2011). Working with activity theory: context, technology, and inform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2(4), 776-788.
- Baran, B. & Cagiltay, K. (2010). The dynamics of online communities in the activity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3(4), 155-166.
- Dunne, J. E. (2002). Information seeking and use by battered women: a “person-in-progressive-situations” approa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4(4), 343-355.
- Edwards, S. & Poston-Anderson, B. (1996). Information, future time perspectives, and young adolescent girls: concerns about education and jobs. *Library & Information*

- Science Research, 18(3), 207-223.
- Engeström, Y. (1999). Activity theory and individual and social transformation. *Perspectives on Activity Theory*, 19(38), 19-30.
- Engeström, Y. (2015). *Learning by Expand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sgren, E. & Byström, K. (2018). Multiple social media in the workplace: contradictions and congruencie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28(3), 442-464.
- Frost, J. & Massagli, M. (2008). Social uses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ithin PatientsLikeMe, an online patient community: what can happen when patients have access to one another's data.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0(3), e15.
- Given, L. M., Winkler, D. C., Willson, R., Davidson, C., Danby, S., & Thorpe, K. (2016). Watching young children "play" with information technology: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in the hom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8(4), 344-352.
- Greyson, D. (2017). Health information practices of young parents. *Journal of Documentation*, 73(5), 778-802.
- Head, A. & Eisenberg, M. (2011). How college students use the Web to conduct everyday life research. *First Monday*, 16(4). April 4, 2011.
- Kamanga, R. & Alexander, P. M. (2020). Contradictions and strengths in activity systems: enhancing insights into human activity in IS adoption research. *The Electron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e12149.
- Kaptelinin, V. & Nardi, B. A. (2006). *Acting with Technology: Activity Theory and Interaction Design*. Cambridge: MIT Press.
- Kim, K. S. & Sin, S. C. J. (2016). Use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in the academic context: analysis of gap between students and librarian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1), 74-82.
- Lioutas, E. D., Charatsari, C., La Rocca, G., & De Rosa, M. (2019). Key questions on the use of big data in farming: an activity theory approach. *NJAS-Wageningen Journal of Life Sciences*, 90, 100297.
- MacIver, R. M. (1970). *On Community, Society, and Pow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F., Davis, K., & Partridge, H. (2019). Everyday life information experiences in Twitter: a grounded theory. *Information Research*, 24(2), paper 824.

- Mishra, J. L., Allen, D. K., & Pearman, A. D. (2013). Information use, support and decision making in complex, uncertain environment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0(1), 1-10.
- Nahl, D. (2004). Measuring the affective information environment of web search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1(1), 191-197.
- Oh, C. Y., Butler, B. S., & Lee, M. (2014). Information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settling in an unfamiliar geo-spatial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1(1), 1-11.
- Oh, S. & Syn, S. Y. (2015). Motivations for sharing information and social support in social media: a comparative analysis of Facebook, Twitter, Delicious, YouTube, and Flickr.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10), 2045-2060.
- Park, H. & Cho, H. (2012). Social network online communities: information sources for apparel shopping.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9(6), 400-411.
- Rantala, A., Enwald, H., & Zinn, S. (2019). Web-based health information seeking: a small-scale comparative study between Finnish and South African university students. *Library Hi Tech*, 37(4), 933-944.
- Rieh, S. Y. & Hilligoss, B. (2008). College students' credibility judgments in the information-seeking process. *Digital Media, Youth, and Credibility*, 49-72.
- Rowley, J., Johnson, F., & Saffi, L. (2017). Gender as an influencer of online health information-seeking and evalu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8(1), 36-47.
- Rubenstein, E. L. (2015). "They are always there for me": the convergence of social support and information in an online breast cancer communi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7), 1418-1430.
-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 Savolainen, R. (200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5-163.
- Savolainen, R. (2007). Information source horizons and source preferences of environmental activists: a social phenomenological approach.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12), 1709-1719.
- Sin, S. C. J. (2016). Social media and problematic everyday life information-seeking outcomes: differences across use frequency, gender, and problem-solving styl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7(8), 1793-1807.
- Sin, S. C. J. & Kim, K. S.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the informational value of social networking si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2), 107-116.
- Wilson, T. D. (2006). A re-examination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in the context of activity theory.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11(4), n4.
- Wilson, T. D. (2008). Activity theory and information seeking.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2(1), 119-161.
- Zhang, Y. (2012). College students' uses and perceptions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health and wellness information.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17(3), n3.
- Zhou, T. (2011). Understanding online community user participation: a social influence perspective. *Internet Research*, 21(1), 67-81.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ck, Ga-Yeon, & Park, Ji-Hong (2021).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use video contents as an information source of serious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2), 69-99.
- Choi, Yu-Sook (2019). Hate speech in online college communities: with a focus on C university's Everytime Hot Posts.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0, 33-53.
- Everytime (2021). Everytime. Available: <https://everytime.kr/>
- Hwang, Rachel (2019). A Study on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cculturation Type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Jeong, Ji-Won (2019, August 19). What happened at Everytime. Available: <https://www.allurekorea.com/2019/08/19/에브리타임에서-생긴-일>
- Kang, Min-Ju (2021, February 25). essential apps for the new semester - Zoom, Instagram

- Pay, and Everytime. 4th Journal, Available: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425>
- Kwon, Na-Hyun, Lee, Jung-Yeoun, Chung, Eun-Kyung, Jang, Gil-Su, & Yun, Hey-Jin (2013).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se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everyday life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69-295.
- Lee, Byung-Chan, Lee, Cheon-Hee, & Kim, Yeon-Jung (2015). A study on information exchange characteristics, usefulness and adherence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online community as a cyber leisure space.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4(2), 55-64.
- Lee, Hang & Kim, Joon-Hwan (2010). The effect of online university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community commitment and reuse intentions. *The E-business Studies*, 11(4), 165-185.
- Lee, Ha-Yeon, Go, Ju-Eun, & Joo, Min-Ho (2021). Effects of university belonging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on learning persistence in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due to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4(1), 231-251.
- Lee, Jeong-Mee (2010). Seeking and using information sources by college students: comparisons of information seeking in everyday life and during e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117-135.
- Lee, Jung-Yeoun, Chung, Eun-Kyung, & Kwon, Na-Hyun (2012). Scientists' information behavior for bridging the gap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the scientific research lifecyc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99-122.
- Lee, Sang-Moo, Choi, Doo-Sik, & Moon, Byeong-Joon (2017).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job seeking efficacy and effects on job-seek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propensity of college students who joined job-search communit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7(3), 83-107.
- Lim, Bo-Youn & Kwon, Ki-Sung (2020). Facebook as a digital writing space meaning and possibility of 'Bamboo Forest': subject to writing a self-experience essay based on 'Bamboo Forest'.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1(5), 415-445.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2020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 Park, Jun-Yong (2021). Trend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ommunity in the

- COVID-19 Environment Using Text Min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 Roh, Hyo-Jin & Chang, Woo-Kwon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library user's sense of community on user satisfaction and loyal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137-168.
- Son, Jin-Young & Lim-Geol (2016).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f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online.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Proceeding*, 2016(2), 339-348.
- Yang, Ji-Yeon & Kim, Hye-In (2012). Community and community museum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al roles and conditions of community museum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7(4), 107-130.

[부록 1] 반구조화 면담 질문지

요소	질문내용
주체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나요? 왜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나요? A. 일상정보를 찾아볼 때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B. 일상정보를 다른 곳이 아닌 에브리타임에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객체	1. 주로 어떤 상황에 에브리타임에서 일상정보를 찾아보나요?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했는지 경험을 이야기 해 주세요. 2. 에브리타임이 각 정보주체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 에브리타임에서 얻는 일상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중 어떤 종류의 정보가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나요?
역할 (분업)	1. 주로 에브리타임에서 일상정보를 물어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찾아보기만 하나요? 2. 에브리타임에 일상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나요? 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해보았나요? 3. 에브리타임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왜 그렇게 하나요?
성과	1.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얻은 일상정보에 만족하나요? 만족/불만족 한다면 어떤 점인지 말씀해주세요. 2. 에브리타임의 일상정보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또, 에브리타임을 통해 얻은 일상정보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했나요? 3. 에브리타임에서 필요한 일상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왜 그랬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했나요?
공동체	1. 에브리타임의 다른 이용자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2.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3. 에브리타임의 다른 이용자들이 나와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상황에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나요? 4. 에브리타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나요? 5.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면서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규칙	1. 에브리타임을 사용할 때 엄두해 두는 부분(에티켓)이 있나요? A.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B. 본인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을 잘 지키나요? 2. 그 중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티켓이 있나요? 에브리타임을 사용하는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에티켓(규칙)을 형성한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도구	1.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일상정보를 공유하거나 찾아보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나요? 에브리타임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했나요? 2. 에브리타임으로 일상정보를 공유하거나 찾아볼 때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3. 에브리타임은 누구나 게시판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개설/관리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